

제3회 결핵연구원 연수강좌를 마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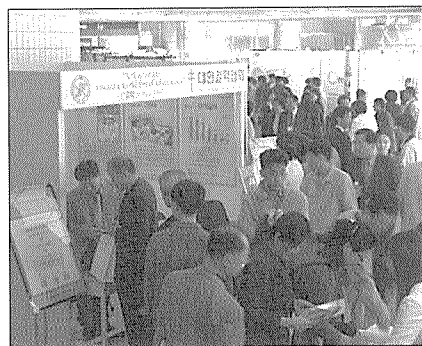
지난 5월 14일(일)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이 주최하고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후원하는 제3회 결핵연구원 연수강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2004년 제1회를 시작으로 매년 열리는 결핵연구원 연수강좌는 결핵 및 호흡기질환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한 강좌들로 해가 갈수록 더욱 호응을 얻고 있다.

오전 8시 30분 등록을 시작해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강의는 팍팍하게 진행되었지만 참가자들은 한 시간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진지한 자세로 경청하며 궁금한 점을 묻는 등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였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연수강좌는 결핵이나 호흡기관련 분야의 의사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만한 알찬 강좌로 구성되었다. 결핵연구원 김희진 기술협력부장의 '결핵 진단의 최신 기법'을 비롯해 국립의료원 유남수 흉부내과 전문의의 '2005년 진료지침에 따른 결핵의 진단과 치료'는 매우 의미있는 강의였다.

이밖에 '천식의 진단과 치료', 'COPD의 진단과 핵심치료'에 대한 강의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천식이나 COPD에 대해 심도있게 알아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서울의대 한성구 교수의 '오페라에서 나타난 결핵'은 서양 음악인 오페라에서 결핵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우리의 인식 속에 결핵은 어떠한 병인지를 알아볼 수 있었던 유익하고도 재미있는 강의였다.

한편 대한결핵협회는 행사장 내에 결핵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결핵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동영상 상영하여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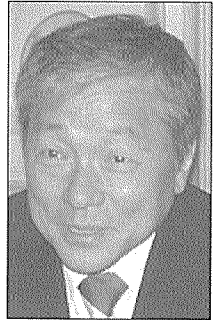


세계보건기구(WHO) 이종욱 사무총장 별세

이종욱(61세)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5월 22일 오전(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사망했다. 제 59차 세계보건기구 총회 개막을 앞둔 20일 집무중 뇌출혈로 쓰러져 제네바 칸토날병원에서 수술을 한 후 숨졌다고 세계보건기구 사무국은 밝혔다.

故 이종욱 사무총장은 1983년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한센병자문관을 시작으로 평생을 세계보건기구에서 봉사하였다. 특히 2000년 결핵 국장으로 재임하면서 북한에 6만 명분의 결핵약을 공급하는 등 19개국을 대상으로 활발한 결핵퇴치 사업을 벌였으며, 에이즈 등의 질병퇴치와 예방에도 총력을 다했다. 이에 '한국의 슈바이처', '백신의 황제'로 불리기도 했던 이 총장은 지난 2003년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으로 선출돼 한국인 최초이자 최고의직 국제기구 수장에 올랐다.

장례식은 24일 낮 12시 30분(현지 시각) 세계보건기구 주관으로 제네바 노트르담 성당에서 열렸으며, 국내에서는 24일 서울 서초동 외교안보연구원에 분향소를 마련한 가운데 이규형 외교부 제2차관이 방문해 고인의 영정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이 총장의 유해는 28일 서울로 운구돼 영결식을 가진 뒤 대전국립묘지에 안장된다.



2006년 「결핵 및 금연포스터」 공모전 심사

대한결핵협회와 소년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2006년 결핵 및 금연포스터 공모전에서 결핵부문에 시흥장곡초등학교 5학년 이혜린 학생이, 금연부문에 광명북중학교 2학년 김유림 학생이 각 부문 최고상에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총 5,482점이 응모되었으며, 이 중 최고상 2명, 금상 8명, 은상 12명, 동상 20명, 장려상 80명 등 122명이 입상하였다. 심사는 대한결핵협회 김성권 사무총장, 노재만 관리부장, 경기대학교 오용환 교수, 한국화가 김양자 님, 소년한국일보 이용택 편집국장이 맡았다. (각 수상자 명단은 대한결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nta.or.kr) 참조)

